

재한(在韓) 조선족(朝鮮族)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계획*

-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고찰 -

Housing Plans of ChoSun-Tribe Immigrant Workers in Korea*

- An Analysis of Housing and Domestic Living of ChoSun-Tribe in Korea and China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자주거 전공
연구교수 이 영 심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주거 전공
교 수 최 정 신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Life Science, Consumer & Housing studies, Catholic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Lee, Young Shim

Division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Faculty of Human Ecology,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 : Choi, Jung Shi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문헌고찰

IV. 결과해석 및 논의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mmigrant workers in Korea who have a multi-cultural background are increasing a need is arising to support them with housing that considers their housing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ther information to formulate a plan of ChoSun-Tribe Immigrant Workers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d to the usage of domestic space and the seating style of ChoSun-Tribe members in China and Korea. Ethnographic research with a questionnaire was used to analyze 16 households in China and 17 in Korea.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1. Most of the ChoSun-Tribe members in China and Korea thought that the kitchen had to be separated from other areas and also they wanted to have a large kitchen in which they can work comfortably. 2. ChoSun-Tribe members in China used a bathroom as a laundry normally while and ChoSun-Tribe members in China and Korea didn't think that a bathtub was indispensable in the bathroom. 3. The most uncomfortable feature for ChoSun-Tribe members in Korea was having to use a toilet outside so a toilet should be considered inside of the house. 4. ChoSun-Tribe

Corresponding Author : Young-Shim Lee,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Life Science, Consumer & housing studies, Catholic Univ. 43-1 Yokgok2-dong, Wonmi-gu, Bucheon city, 420-743, Korea Tel: +82-2-2164-4836 Fax: +82-2-2164-4301 E-mail: yslee99@hanafos.com

* 본 논문은 2007년도 학술진흥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연구과제번호: C00074)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members in China and Korea were accustomed to sitting on the floor for their living usually and ChoSun-Tribe members in China used the living room as a multi-purpose room for the family. 5. A modified Ondol system using water pipes under the floor was gaining popularity in China and was the most desirable heating system for ChoSun-Tribe members in China and Korea also. 6. ChoSun-Tribe members in China and Korea all took off their shoes inside of the house for hygienic reasons so the space for taking on-off shoes was indispensable. 7. Housing for ChoSun-Tribe immigrant workers in Korea needs to be planned with a good environment lots of sunshine and better ventilation.

주제어(Key Words): 다문화적 배경(multi-cultural background), 주거 문화(housing culture), 이주 노동자(immigrant workers), 조선족(ChoSun-Tribe), 주거 공간(domestic space), 기거 양식(seating style)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노동력의 이동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노동 임금의 격차에 기인한 현상으로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은 이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보호자 수용소와 난민을 제외하고 자기 나라가 아닌 장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정의되는 세계적인 '이주 노동자'는 8천 6백만 명으로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었다(ILO, 2004).

주요 인력 수출국이던 우리나라가 인력 수입국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이 사양 산업으로 되면서 저임금 노동 분야에서의 노동력이 급속하게 감소하게 된 데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관련 직에서 인력 부족이 극심하였으며 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이 유입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988년에 치른 서울 올림픽은 이를 더욱 촉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1992년에 중국과의 국교 수립 이후에는 중국의 노동력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국내의 외국인은 모두 80만 4천여 명이며 이 중 이주 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는 35만 명이나 미등록 노동자까지 더하면 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서울신문, 2006.6). 한편 정부는 2007년에 10만 5천 명의 이주 노동자를 추가로 도입하고 취업 업종 또한 종전의 12개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이주 노동자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와 관련한 연구는 경제와 관련법률 분야 및 인문사회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으나 주거 분야의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장소인 주거는 특히 이주 노동자들에게 생활의 적응 정도 및 만족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들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을 그 첫 번째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조선족 이주 노동자는 2000년에 7만 7천여 명에서 2005년에는 17만 여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현재는 약 40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설동훈, 2002; 출입국관리국, 2004). 본 연구는 재한(在韓) 조선족 이주 노동자의 주거 계획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 과정의 하나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고찰을 1차로 한 바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¹⁾. 이는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계획 시 이들의 주거 문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 후속 연구로서 한국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주생활 요구를 구체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주거 문화를 고려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주거 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계획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지역의 선정

본 연구는 영등포구, 금천구, 안산 지역을 연구 지역으로

¹⁾ 본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의 고찰을 위하여 2007년 1월 13일 - 1월 23일에 중국 길림성(吉林省) 영길현(永吉縣)에 거주하는 조선족 12가정과 길림 시내(市內)에 거주하는 조선족 4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하였다.



〈사진 1〉 재한 조선족 집거지역인 영등포구의 다가구 주택지



〈사진 2〉 재한 조선족 집거지역인 금천구의 다가구 주택지

하여 2007년 3월 3일-4월 9일에 행하였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을 국가별로 보면 비OECD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서울경제,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²⁾. 안산 지역 역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 4만 여명이 모여 살고 있으며 원곡동에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형성한 ‘국경없는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³⁾ 따라서 영등포구, 금천구, 안산 지역을 조선족의 생활 및 주거 문화를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본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사진 1) (사진 2).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를 위하여 영등포구 대림동(11가구), 금천구 가산동(4가구), 안산시 원곡동(2가구)에 거주하는 조선족 17가정을 방문하였다. 본 연구는 소수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일종의 질적(質的) 연구인 문화 기술적 현장연구(Ethnographic field study)⁴⁾의 틀을 사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따라서 방문 가정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주부와 면담을 하였으며 각 주택에 대한 사진 촬영과 실측을 하였다.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로 질문지의 항목에 기초하여 질문하였으며 면담자의 부연 설명 혹은 추가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주 공간과 주 생활 면으로 구분하였다. 주 공간의 사용은 각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유형 그리고 각 공간의 계획과 평가 등이었고 주생활 면은 공간 별 활동 내용, 입식과 좌식 정도 그리고 공간별 바닥재 및 난방 방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일부 문항에서 평가한 조사대상자의 만족 정도는 아주 만족한다(5점)에서 아주 불만족하다(1점)의 5단계로 분류하여 평균 점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일부를 대상

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Ⅲ. 문헌고찰

1. 조선족 이주 노동자의 원 거주지 및 국내 거주지의 특성

조선인이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배경은 17-18세기의 흉년과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소작지를 잃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당시 권력층의 부패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주 초기에는 비옥한 토지를 찾아서 중국의 동북 지역으로 주로 이주하였으며 20세기 초부터는 독립 운동을 위한 애국지사들의 이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중국 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회의(1928년 7월)에서 처음으로 조선 민족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한 이후에도 조선족은 고려인, 한국인, 조선족 등으로 혼용되어 불렸다. 1952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되면서 ‘조선족’이라는 호칭이 확정되었으며 공식적인 소수 민족으로서의 정치적인

²⁾ 영등포구와 구로구는 과거 공단 밀집지역으로서 공장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해 계획한 작은 규모의 방들이 많았다. 공단이 철수한 후 남아 있던 소규모주거 밀집지역에 1990년대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 지하철 노선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는 것도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한 거주 조건이다.

³⁾ 2002년 말 안산시 원곡동의 파출소 통계는, 안산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21개국 28,500여 명으로 미등록 체류자까지 더하면 35,000명- 40,000 명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 원곡동에만 8,000여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이 국제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등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이태정, 2004).

⁴⁾ 문화인류학 바탕의 문화 기술적 현장연구는 관찰과 면담을 주로 하면서 기록, 분석하고 그 결과가 다음 단계의 관찰과 면담을 끌어내는 순환적인 방법이다(이희봉, 1998).

위상을 확보하였다(황유복, 2001).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90%는 중국의 동북지방인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고 자치주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⁵⁾.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편 이후에 사회 경제면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다. 다수의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였으며 한국 역시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경제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비 수준 역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력의 이동이 중국 국내 뿐 아니라 국외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조선족의 경우 농사가 주된 업종인 동북지역으로부터 일 자리를 찾아 북경, 천진, 위해 등의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혹은 한국, 일본, 미국 등의 국외로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02년 현재 조선족의 대도시 유입 규모는 베이징에 약 7-10만 명, 칭다오(靑陶)에 약 4-5만 명, 상하이와 광쥘(黃州)에 2-3만 명 등 약 3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약 200만 명의 중국 조선족 인구 중 15% 정도가 고향을 떠난 것이다(송대수, 2002).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조선족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이주 노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50-55세 이상의 퇴직한 조선족의 경우 자녀들의 도시 정착 및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기 이전에는 대부분 소속된 직장에서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였으므로 주택 구입이 수월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경 제도가 바뀌면서 현재 젊은이들에게 주택을 소유하는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역시 이주 노동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 연고가 있는 조선족은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 자식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지원은 산업연수생의 경우 기숙사를 제공하고 숙식비용을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⁶⁾. 그러나 현재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재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주거비용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주거 환경은 열악할 것으로 사료된다⁷⁾. 고용허가제의 실시에 따라 재한 이주 노동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5년까지 가능해지는 등 이주 노동자들의 체제 조건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주거 지원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자인 주부의 연령 분포는 50세-59세 미만이 5사례, 60-69세 미만과 70세-79세 미만이 각각 4사례였고 평균 연령은 58.9세였다. 평균 가족 수는 2명이었으며 가족 형태는 부부로만 구성된 경우가 6사례로 가장 많았고 주부 혼자인 경우가 5사례였다. 주부의 학력은 12사례가 중학교 졸업 이하였고 직업은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를 키우고 가사보조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7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5사례였고 공장 근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2사례였다⁸⁾.

재한 조선족의 소득정도는 월 100만원-150만원인 경우가 8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월 소득은 1,309,000원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2002)이 조사한 재한 이주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80만원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으로 파악되었다. 주택 형태는 1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다가구 주택이었으며 대부분 반 지하(10사례)에 위치하였다⁹⁾.

재한 조선족의 집세 지불 방식은 1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지불하는 형식이었는데 보증금은 평균 167만원이었으며 월세는 평균 17만원이었다.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의 출신 지역은 길림성(13사례)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에서의 거주 형태는 아파트가 12사례(70.6%)였다.

⁵⁾ 중국의 제5차 전국인구조사자료(2000년) 결과, 조선족 인구는 길림성(1,145,688명), 흑룡강성(388,458), 요녕성(241,052)의 순으로 인구가 많았다(老年世界, 2003, 6호)

⁶⁾ 산업연수생의 주거 공급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며 기숙사는 근로자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해야 하고 침실 면적이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1실의 거주 인원이 15인 이하일 것 등이다.(하갑래, 2005).

⁷⁾ 이주 노동자의 취업은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이주 노동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혹은 고용주와 직접 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류기간도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⁸⁾ 본 연구에서 무직(無職)은 모두 5사례였으며 그들의 평균 연령은 66세였다. 이 중 2사례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로 월 30-50만원의 기본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1사례는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월 100만원의 기본생활비를 받고 있다. 이들의 체류 목적은 국적 취득 후 자식을 초청하는 것이며 이들은 한국에서의 영구 거주를 희망한다.

⁹⁾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의 주거가 대부분 월세 방 1칸과 좁은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지하 셋방이나 옥탑방에 거주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 주거는 주택부족 현상에서 시작된 형태로 지상 주거와 달리 습기와 결로, 심리적인 압박감 등의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2003년의 연구 자료는 서울의 총 지하주거 규모를 최소 25만 세대로 추정하였다(대한주택공사, 2005).

〈표 1〉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주부 이름	주부 나이	가족 구성	가족 수	주부 학력	주부 직업	월 소득	중국의 거주지	중국에서의 거주형태	현재 주택 형태	침실 수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주택 층수
K씨	60	주부+아들 +주부의동생	3	고졸	입주보모	300만원	길림성	아파트	다가구	1	월세	반지하
K씨	62	주부 +아들	2	고졸	입주보모	250만원	길림성	아파트	다가구	1	월세	반지하
K씨	59	부부	2	중졸	입주보모	200만원	길림성	아파트	다가구	1	월세	반지하
O댁	58	주부	1	중졸	입주보모	100만원	흑룡강성	단독주택	다가구	1	월세	반지하
N씨	56	부부	2	중졸	입주보모	130만원	길림성	아파트	다가구	2	월세	반지하
N씨	45	부부	2	고졸	입주보모	130만원	길림성	아파트	다가구	1	월세	반지하
L씨	74	주부	1	초졸	회사 청소업	70만원	길림성	아파트	다가구	1	월세	지 하
L씨	78	주부	1	무학	공장근로직	13만원	길림성	단독주택	다가구	1	월세	반지하
K씨	57	부부	2	중졸	입주보모	150만원	길림성	아파트	다가구	1	월세	반지하
G씨	70	주부+아들	2	초졸	없 음	70만원	흑룡강성	아파트	다가구	1	월세	2 층
L씨	68	부부	2	초졸	없음(영세민)	35만원	길림성	아파트	다가구	1	월세	반지하
K씨	47	부부+친정어머니	3	대졸	여행사경영	250만원	길림성	아파트	단독주택	2	전세	1 층
C씨	62	주부+친구들	3	중졸	없음(유공자)	100만원	길림성	단독주택	다가구	3	월세	1 층
G씨	58	부부+아들+외손녀1	4	초졸	없 음	140만원	길림성	단독주택	다가구	2	월세	1 층
O씨	70	부부	2	초졸	없음(영세민)	55만원	내몽고	단독주택	다가구	1	월세	반지하
K씨	43	주부	1	고졸	식당서비스	150만원	길림성	아파트	다가구	1	월세	2 층
P씨	32	주부	1	중졸	공장근로직	110만원	천진시	아파트	다가구	1	월세	1 층

* 조사대상자의 이름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문 약자로 표기하였음.

2. 주 공간 사용

1) 주거 공간의 유형 및 평가

조사대상 주택의 주거 공간 유형은 〈표 2〉와 같다. 재한 조선족 주택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부엌 1칸과 방 1칸으로 전체에서 13사례가 이 유형이었다(그림 1)(그림 2). 조사대상 주택 중 3사례 이외에는 방과 부엌의 바닥 높이가 다르고 양쪽을 오갈 때 신발을 신고 벗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사진 3).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부엌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에 만족하였고 부엌과 기타 공간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모두 부엌과 기타 공간은 분리해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조리 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의 음식 습관 때문이었으며 또한 조리하는 모습이나 정리되지 않은 부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었다.

중국 거주 조선족 주택에서 가장 많았던 유형은 부엌이 거실과 식사실에서 분리된 유형이었으며 이들 역시 부엌과 거실의 분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또한 중국 거주 조선족의 음식 문화는 중국과 한국의 혼합식이었으나 중국 양념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기름으로 볶는 경우가 많은

것 등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즉, 본 연구 결과 재한 조선족과 중국 거주 조선족 모두 부엌을 기타 공간에서 분리 계획하는 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부엌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재한 조선족의 부엌에 대한 만족정도는 평균 2.5점으로 높지 않았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의 12사례(70.6%)가 부엌 면적이 작다고 언급하였으며 중국에서의 부엌 면적과 많은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주택의 부엌 크기는 평균 1.5m x 3.5m 정도가 보통으로 한 사람이 서서 일하기에도 비좁음을 느끼고 있었다. 부엌의 작업대는 12사례(70.6%)가 가스레인지대와 개수대의 2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3사례(17.7%)는 가스레인지대, 개수대, 작업대 등의 3조 그리고 2사례(11.7%)는 가스레인지 1조만을 갖추고 있었다. 부엌에는 대부분 온수가 공급되었고 난방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조사대상자들 모두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5사례가 냉장고를 부엌에 두었고 나머지 12사례(70.6%)는 방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 세탁기를 소유한 경

〈표 2〉 재한 조선족의 부엌과 방의 연결유형 N=17

유형	f(%)
부엌 + 방 1개	14(82.3)
부엌 + 방 2개	1(5.9)
부엌 + 거실 + 방 2개	1(5.9)
부엌 + 방 3개	1(5.9)
계	1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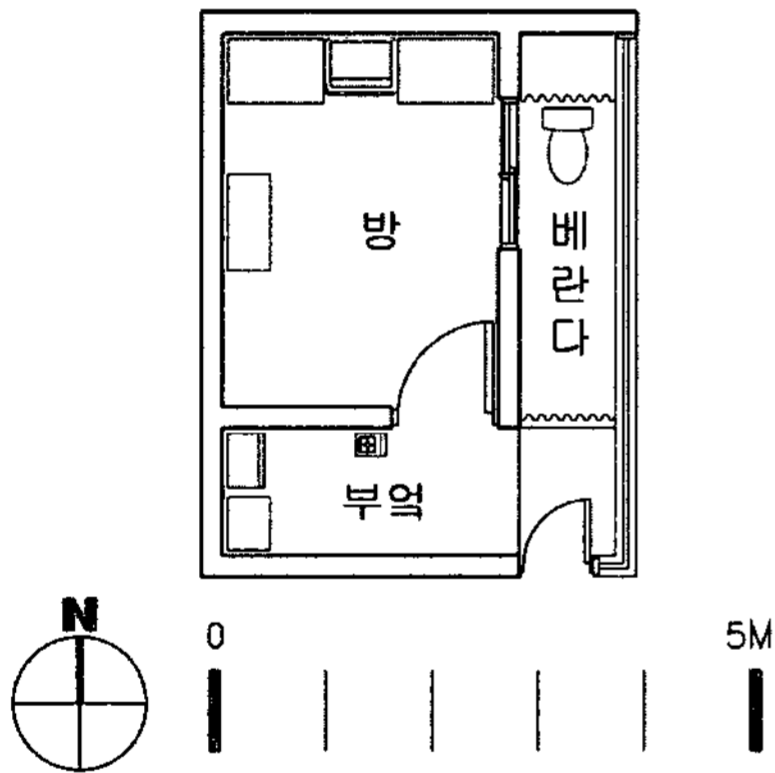
우는 11사례(64.7%)였는데 이들 중 4사례가 부엌에 두고 사용하였다(사진 4). 취사연료는 대부분 도시가스였으나 3사례는 이동용 부탄가스 혹은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부엌에 대한 요구 사항 중 면적에 대한 요구 정도가 가장 높아 부엌에서의 작업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보다 넓은 부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부엌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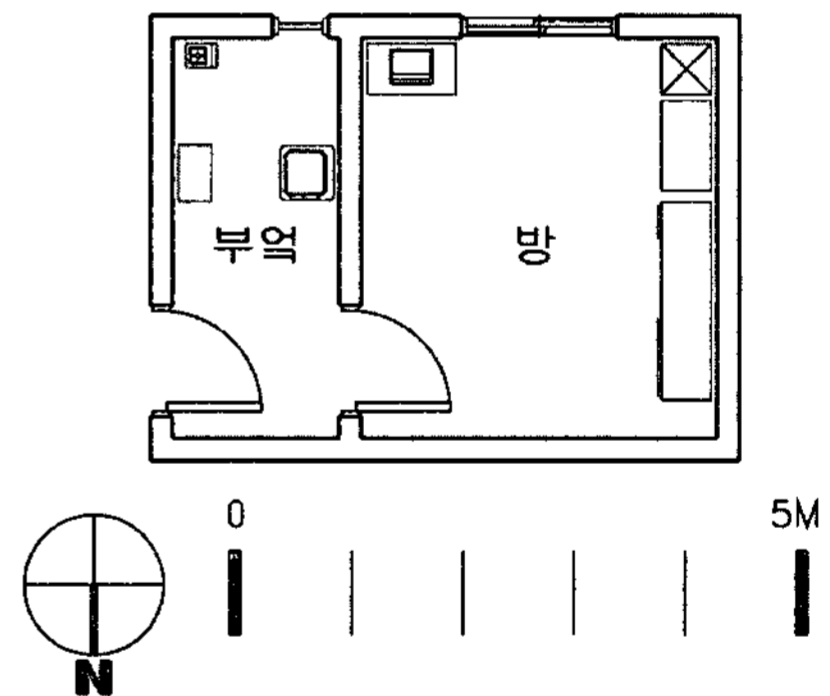
한 만족 정도는 평균 3.3점 정도로 보통이었으며 부엌의 면적에 불만족한 경우가 전체의 37.5%(6/16)로 부엌 면적을 넓히기 위한 개조가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각각 1사례씩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즉, 현재 제한된 주거에서 생활하는 재한 조선족 뿐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에게도 부엌의 면적은 매우 중요한 계획 요소로 평가되었다.

3) 욕실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 중 욕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전체에서 7사례(41.2%)였는데 욕실 설비는 세면대와 별도의 수도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변기가 함께 있는 경우는 3사례였다(사진 5). 주택 내에 욕실이 없는 10사례(58.8%)는 부엌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에서 세면과 샤워를 하고 있었다. 즉, 여름에는 부엌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공중목욕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5사례(29.4%)는 비용 문제로 겨울에도 여전히 부엌에서 목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엌의 난방문제가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욕실에 세탁기를 두고 사용하는 경우는 2사례였는데 이



〈그림 1〉 부엌과 방, 화장실로 구성된 예(금천구 G씨 덕)



〈그림 2〉 부엌과 방으로 구성된 예(구로구 K씨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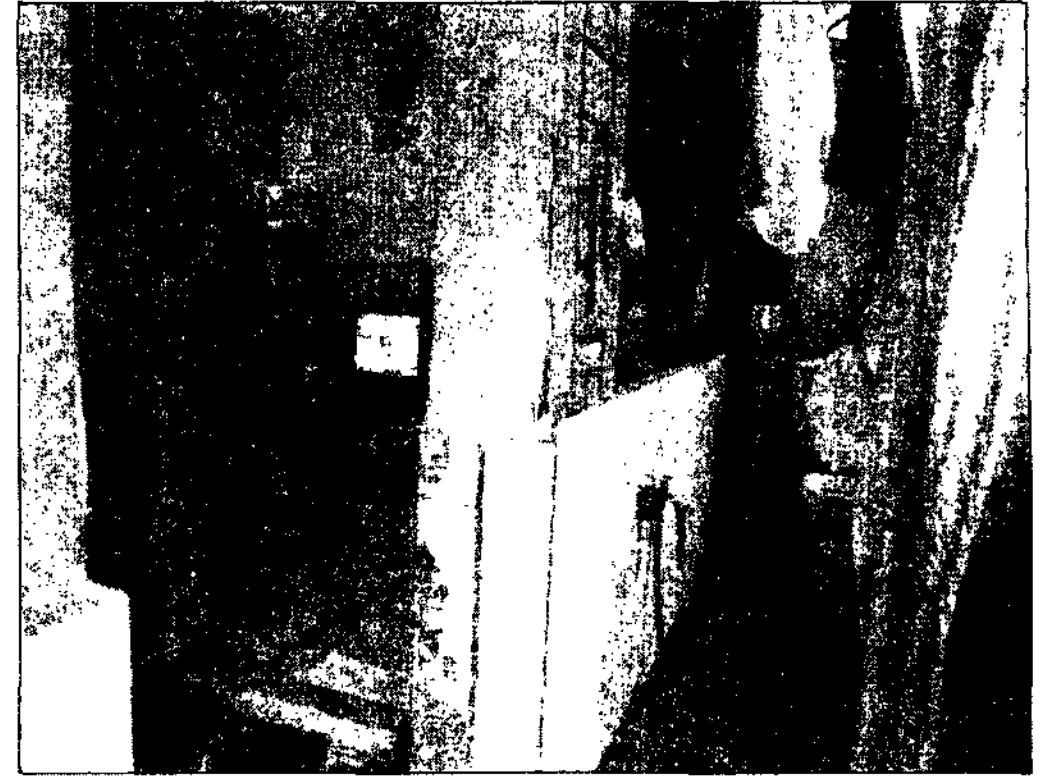
〈사진 3〉 부엌과 방의 전형적인 연결 형태(금천구 G씨 덕)



〈사진 4〉 조리와 세면, 세탁 공간을 겸한 부엌(구로구 K씨 덕)



〈사진 5〉 부엌 옆에 욕실을 계획한 경우(구로구 K씨 택)



〈사진 6〉 베란다에 변기를 놓아 화장실을 계획한 경우(금천구 G씨 택)

들 모두 세탁기를 별도의 공간에 두고 욕실을 넓게 사용하기를 희망하였다. 조사대상 주택 중 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는 전혀 없었는데 대부분 욕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의 12사례(70.6%)가 중국에서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이들 중 3사례(25.0%)만이 욕조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에게 욕조는 그 필요 정도가 낮은 설비로 평가되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주택 16사례 중 11사례는 처음부터 욕조를 계획하지 않았고 3사례는 있던 욕조를 제거하여 조사대상 주택 전체의 2사례만이 욕조를 갖추고 있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재한 조선족과 중국 거주 조선족 모두 욕실에서의 욕조에 대한 필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의 5사례(29.4%)만이 주택 내부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3사례는 욕실에 함께 두었고 나머지는 베란다에 변기를 설치하거나 부엌 안에 변기를 설치하고 커튼으로 분리하였다(사진 6). 이상의 5사례 외에는 모두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는데 3-4집이 함께 사용해야 하므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화장실이 주택 내부에 있는 경우는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간주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집세가 더 비싸다. 고성열(2005)의 안산지역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택 내에 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각각 62.2%, 57.1%로 조사된 바 있는데 안산지역 주택의 설비 수준이 전국의 평균보다 낮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 주택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세탁 공간에 대한 평가 및 요구

재한 조선족 주택의 경우 마당에 수돗가가 있는 2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탁 공간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세탁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11사례:64.7%)에 세탁기는 부엌(4사례)과 욕실(2사례)에 두거나 현관(1사례) 혹은 골방(1사례)에 두었으며 밖에 내놓은 경우도 3사례 있었다. 세탁기를 밖에 둔 경우 겨울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이 손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대개 부엌 바닥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8사례(47.1%)의 조사대상자들이 속옷과 수건 등을 삶고 있어 조사대상 주택의 부엌은 조리과 세면, 세탁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매우 혼잡한 공간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주택의 연구 결과에서도 세탁실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욕실에 세탁기를 두고 여기에서 손세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조사대상 지역인 동북지역이 겨울에 매우 추워 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하면 얼기 때문에 세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거 환경에 기인하는데 이들은 세탁 공간으로서 욕실이면 충분하다고 답하여 세탁실에 대한 요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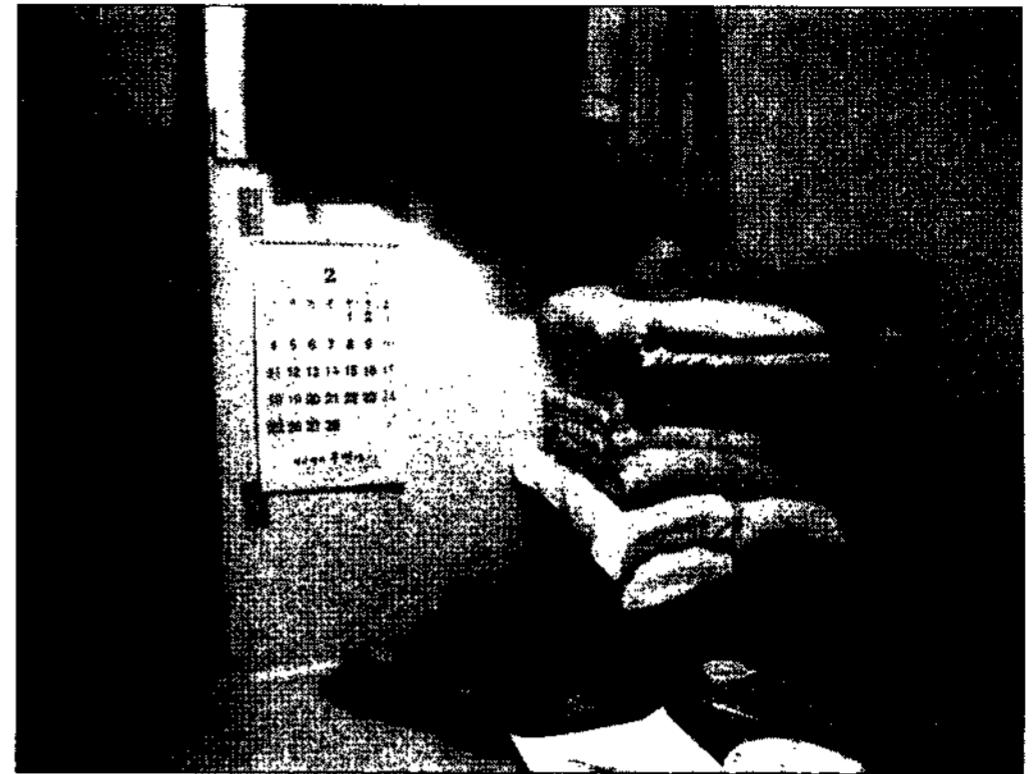
3. 주생활

1) 주 공간 별 주생활 내용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의 대부분(76.8%:13사례)이 부엌 1칸과 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단칸방에서 취침, 식사 그리고 단란 등의 주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습관이 되어 괜찮다”, “불편해도 할 수 없다”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동기가 뚜렷한 일정 기간의 생활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적응한 결과로 평가되었다. 조사대상 주택의 단칸방은 평균 3.2m x 3.6m로서 기본 살림 도구인 서랍장, 옷장, TV 이외에 부엌이 좁은 관계로 냉장고까지 방 안에 두고 있기도 해 주거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사진



〈사진 7〉냉장고를 방 안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구로구 K씨 택)



〈사진 8〉취침을 위한 이부자리와 교자상 등의 좌식 살림(구로구 K씨 택)

7).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서 12사례(70.8%)가 2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들 중 13사례(76.5%)가 중국에서 방 2개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편한 주거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바닥에 요를 깔고 이불을 덮는 좌식으로 취침하고 있었다(사진 8). 이들 중 중국에서 침대를 사용한 경우는 5사례(29.4%)로서 아파트에서도 대부분 좌식 취침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좌식 취침에 대한 불편함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9사례(56.3%)는 침대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손님이 오는 경우에는 9사례(56.3%)가 좌식으로 그리고 7사례(43.7%)가 침대와 좌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

또한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은 가족식사와 손님접대 모두 교자상을 사용하여 좌식으로 하였는데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 일도 빈번하여 협소한 공간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손님접대 및 공동식사는 매우 일상적인 활동으로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자 중 1사례가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새해 차례와 시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10사례(58.8%)가 집에서 김치를 만들어 먹고 있었는데 이들 중 7사례가 배추 씻는 일은 부엌 싱크대에 서서, 버무리기는 부엌 바닥에 앉아서 하는 등 입식과 좌식을 병행하고 있었다. 야채 다듬기 등의 가사 작업은 주로 부엌에서 행하였으나 부엌 공간의 협소함으로 방에서도 일부 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손빨래는 대부분 부엌 한쪽에서 세숫대야를 사용하여 좌식으로 하였다. TV 시청과 화장, 독서 등의 일상적인 활동은 모두 좌식이었으며 재봉과 다림질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역시 다림질(60.0%), 손빨래(86.7%) 그리고 손님과의 식사(73.3%) 등을 좌식으로 하였으

며 TV 시청(68.8%)과 김치 담그기 작업은 입식(배추씻기:66.7%)과 좌식(버무리기:53.3%)을 병행하는 등 주거 조건이 다른 재한 조선족의 경우와 기거양식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7).

2) 공간 별 바닥재의 구성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 구성은 <표 3>과 같다.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의 침실 바닥재는 모두 비닐 장판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비닐 장판 자체에 대한 불만족은 없었으나 주택이 반 지하에 위치한 경우 매우 습도가 높아 바닥과 벽에 곰팡이가 스는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못함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다. 부엌의 경우 2사례는 침실과 같은 비닐 장판이었으며 1사례는 나무 바닥재였다. 부엌이 나무 바닥재인 경우는 단독주택의 1층 전체를 전세 내어 거주하는 사례로 조사대상 주택 중 가장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평가되었다(사진 9). 부엌 바닥재가 비닐 장판 혹은 나무인 3사례의 경우 공통적으로 주택 내에 샤워 및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욕실 공간이 별도로 있었으며 따라서 부엌을 보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나머지 조사대상 주택 14사례의 부엌 바닥재가 타일이며 이곳에서 부엌 일 이외에 세탁과 샤워, 손빨래 등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와 대조된다(사진 10). 한편, 조사대상 주택 중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1사례만이 주택 내에 거실

〈표 3〉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 구성

N=17

바닥 재료	공간 별	침실 f(%)	부엌 f(%)	거실 f(%)	현관 f(%)
비닐 장판		17(100.0)	2(11.7)	·	·
타일		·	14(82.4)	·	17(100.0)
나무		·	1(5.9)	1(100.0)	·
계		17(100)	17(100)	1(100)	17(100)



〈사진 9〉 부엌과 방의 나무 바닥재
(공간 절약을 위해 부엌문을 접이식으로 바꿈:구로구 K씨 댁)



〈사진 10〉 부엌과 방의 높이 차이와 바닥재의 구분(구로구 N씨 댁)

이 따로 있었는데 거실 바닥재는 나무였으며 가족들은 거실을 식사실 및 손님접대 장소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았다.

한편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아파트는 거실(62.5%)과 침실(75.0%)이 대부분 나무 바닥재로 파악되었다. 나무는 좌식을 병행하는 조선족의 주생활 양식에 부합되며 건강과 심미적인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점차 그 선호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이영심, 최정신, 2007). 나무 바닥재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주자들 역시 가장 선호하는 바닥재로 보고(권오정, 전계원, 1999)된 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나무 바닥재는 앞으로 많은 지역에서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실내에서의 신발 착탈과 현관 계획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였으며 특별한 신발 수납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은 철로 된 선반(rack)에 신발을 올려 벽에 걸어 두거나 혹은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신발을 벗어두었으며 신발이 많은 경우는 박스에 넣어 다른 장소에 수납하기도 하였다. 신발을 벗는 장소는 15사례(88.2%)가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부엌 공간의 일부분이기도 한데 1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발을 벗는 공간을 별도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역시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신발 착탈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현관에서 바로 거실 바닥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한족의 관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조사대상 조선족들의 현관에 대한 만족 정도는 평균 3.0점으로 앞으로 위생 면과 편리 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영심, 최정신, 2007).

4) 난방방식의 종류와 평가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은 모두 바닥의 온수 파이프를 데우는 개량 구들방식으로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1사례 이외에는 모두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침실의 난방에 대한 만족 정도는 모두가 만족한다고 답하여 난방 면에서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6사례(35.3%)였는데 사용 이유는 난방용 가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경우는 대부분 전기장판의 사용도 절제하고 있었다. 고성열(2005)의 연구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조사대상 주택 대부분이 가스보일러를 사용해 부엌에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온수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우 아파트의 난방은 온수 바닥 난방방식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만족정도는 3.7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중국 거주 조사대상 조선족들의 이상적인 난방방식 역시 온수바닥 난방으로 파악됨으로서 중국에서 온수바닥 난방이 점차 보편적인 난방방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영심, 최정신, 2007). 이러한 배경에서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온수바닥 난방방식에 익숙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중국에서 평집(단독주택)에 거주하였던 경우는 매일 균불을 때지 않아도 되는 주생활 조건에 특히 만족하였다. 한국에서의 주거 생활 중 편한 점으로 주택 난방이 좋고 더운 물이 잘 나오는 것에 대하여 다수가 언급한 결과는 이들의 온수바닥 난방에 대한 만족 정도가 큼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난방방식 역시 온수바닥 난방으로서 결과적으로 난방방식은 한국 생활의 적응에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요소로 사료된다.

5) 기타 주택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의 주거비용은 가스세, 전기세, 수도세, TV 시청료 등으로 한 달에 평균 15만원이며 부담 정도는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월세 비용이 평균 17만원이며 주거비용에 생활비용까지 더하면 보통 40-5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현재의 주거에서 평균 5.1년을 거주했으며 평균 이주 횟수는 2.2번이었는데 주된 이주 이유는 주거가 습(濕)하고 물이 흐르는 등 반 지하의 주거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이 주택을 얻을 때 우선 고려하는 조건은 대중교통의 편리 정도였는데 생활의 편리 면에서 주택의 위치를 중시하는 것은 중국 거주 조선족 역시 마찬가지였다(이영심, 최정신, 2007). 고성열(2005)의 연구에서는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 역시 주거 선택 시 직장과의 거리,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하며 집 주변의 환경이나 집 구조 등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중국의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은 모두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겨울에 추운 동북지역의 특성 상 햇볕을 충분히 받기 위해 남향 배치가 기본 요건이기 때문이다(이영심, 최정신, 2007). 따라서 주택의 남향 여부는 중국에서 거주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사료되었으나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이 주거 선택 시 향위를 고려한 경우는 없었다. 재한 조선족의 주택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 정도는 53%가 보통이었으며 18%가 불만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V. 요약 및 결론

1.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엌 1칸과 방 1칸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부엌과 방의 바닥 재가 타일과 비닐장판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동 시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은 부엌과 방이 분리되어 있음에 만족하였는데 이는 기를 많이 사용하는 조리 방식 때문에 부엌이 다른 공간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중국 거주 조선족의 조사대상 주택 역시 부엌이 거실과 식사실에서 분리되어 있는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부엌과 거실의 분리를 선호하였는데 그 배경 역시 중국의 음식 문화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중국의 음식 문화에 동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택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사료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이 부엌에서의 불편한 점으로 면적의 협소함을 들었는데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조사대상자들 역시 부엌의 규모가 작다고 평가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부엌을 넓게 사용하고 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현재의 상황 뿐 아니라 부엌 사용에 있어서의 관습적인 면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에 목욕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7사례(41.2%)로서 대부분 부엌에서 목욕을 하고 겨울에는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는데 일부는 비용 문제로 겨울에도 부엌에서 목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탁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부엌에 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손빨래 역시 부엌 바닥에서 하고 있었고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가 빨래 삶을 하고 있어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의 부엌은 조리와 세면, 목욕, 세탁 등을 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욕실이 있는 7사례 중 변기를 함께 계획한 경우는 3사례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외부의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보통 3-4집이 함께 사용해야 하므로 그 불편함이 크다. 중국 거주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의 욕실에는 욕조를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거나 제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난방과 온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집에서 목욕하기 불편한 이유 외에 욕실이 세탁 공간을 겸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동북 지역은 동절기의 추위로 인해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물을 사용하는 공간인 욕실이 세탁 공간을 겸해야 한다. 중국 거주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욕실의 면적과 사용 방법이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욕조에 대한 필요정도가 낮았는데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 역시 욕조에 대한 필요정도를 낮게 평가하여 이들을 위한 욕실 계획 시 욕조가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로 파악되었다.

3.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은 취침, 다림질, 재봉, 손빨래, 김치 버무리는 작업,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의 접대, 손님 식사 등 거의 모든 활동을 좌식으로 하고 있었다. 좌식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나 대부분 중국에서도 좌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좌식은 이들에게 있어 친근하고 편안한 생활양식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이 방 한 개에서 취침과 식사 및 단란, 손님접대 등 모든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친구, 가족과의 모임과 식사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거실에서 손님접대와 다림질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다림질, 손빨래, 김치 버무리기, 손님과의 식사 등을 좌식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좌식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이를 편안하게 느끼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관습이 가지고 있는 지속성 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좌식은 이들의 생활에서 병행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는 대부분 방은 비닐장판 그리고 부엌은 타일이었다. 부엌의 바닥재가 타일인 것은 대부분 취사와 세탁, 샤워 등을 부엌에서 하는 현실적인 필요에 기인한 것이나 방과 부엌의 이동 시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중국의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는 아파트의 경우 거실과 침실은 나무, 부엌과 욕실은 타일이 일반적이었다. 나무 바닥재는 온수바닥 난방이 보급되면서 보편화되고 있는데 좌식 생활에 적합하여 그 만족 정도가 높았다. 중국의 전통적인 부엌 바닥재는 타일로 이는 물을 사용하는 공간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부엌에 바닥 난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타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 조선족 조사대상 아파트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신발 착탈을 위한 현관이 따로 없어서 현관문에서 바로 거실 바닥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지 않아 별도의 현관 계획이 요구되었다. 대부분의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 역시 신발을 신고 벗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신발 착탈을 위한 현관 계획은 필수적인 요소로 사료되었다.
5. 재한 조선족 주택의 난방방식은 모두 온수바닥 난방으로서 난방 방식과 난방 정도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사용자 스스로 난방의 수급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난방방식 역시 온수바닥 난방이었다. 부엌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몇 사례 있었는데 부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고려할 때 온수 공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의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은 단독주택은 모두 전통 구들이었고 아파트는 온수바닥 난방이 가장 많았다. 점차 일반적인 난방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온수바닥 난방에 대한 만족 정도는 높았으나 스스로 수급을 조절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불편함이었다. 온수바닥 난방방식은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난방방식으로 파악되었다.
6.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조선족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조리

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의 음식 문화에 근거하여 부엌을 기타의 공간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음식 문화를 비롯한 관습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것으로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주택 계획 시 부엌 공간을 분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제한된 규모에서 생활하는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 뿐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조사대상자들 역시 부엌 크기의 협소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 이들의 부엌 크기에 대한 기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이들의 부엌에서의 작업 및 이에 따른 요구 정도 등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조선족 조사대상자들 대부분 욕실에서의 욕조에 대한 필요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욕실과 세탁실을 겸하는 중국에서의 생활 관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욕실 사용방식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주거 공간을 경제적으로 계획한다는 점에서 욕조는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넷째, 현재 대부분의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 주택의 경우 화장실이 주택 외부에 위치하며 여러 집이 함께 쓰는 데서 오는 불편함이 매우 크다. 욕실과 함께 혹은 변기만으로 구성된 화장실을 주택 내부에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부분 방 1칸의 제한된 규모에서 생활하는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 뿐 아니라 중국 거주 조선족 조사대상자들 역시 주생활의 많은 부분을 좌식으로 하고 있었다. 즉, 입식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생활 속에 좌식의 관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좌식 생활을 포용할 수 있는 주택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실의 위치 및 크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섯째, 이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난방방식은 온수바닥 난방방식으로서 스스로 난방의 수급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좌식을 병행하는 이들에게 바닥 난방은 매우 요긴한 요소이며 난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나무 바닥재 역시 이상적인 요소이다. 일곱째, 중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신발 착탈을 위한 현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거실의 일부를 현관으로 사용한다.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의 주택은 공간이 협소하여 현관이 따로 없는데 양쪽 모두 현관에 대한 필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를 위한 계획이 요구되었다. 여덟째, 중국 조선족의 조사대상 지역은 겨울의 추위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 주택의 남향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한 조선족 조사대상자들의 주택은 대부분 반 지하 혹은 지하에 위치하여 햇볕이 잘 들지 않고 바닥과 벽이 습한 등 주거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의 주택 계획은 지상(地上) 거주를 통하여 일조와 통풍 등의 조건을 양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거 및 주생활을 분석하여 앞으로 재한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 계획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기타 지역 출신의 이주 노동자를 위한 주거 계획 역시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이주 노동자의 주거 문화를 파악하고 거주지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해당지역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주거 계획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고성열(2005).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안산시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오정, 전계원(1999). 아파트 거실 바닥재에 대한 선호와 만족도. 한국주거학회지, 10(2), 223-234.
- 대한주택공사(2005). 지하주거공간의 주거환경과 거주인 실태에 관한 연구. 17-18.
- 로년세계(老年世界, 2003, 6호). 2000년 제5차 전국인구조사 자료로부터 본 조선족인구실태. 연변인민출판사, 연변 조선족자치주 로년협회 합동출간. 루계 64호.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자료, 2004, 9.18.
- 서울경제(2006). 경제포커스 -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 - 산업경제센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시정연 2002 특별정책과제 <서울시 사회구조와 정책수요>.
- 서울신문(2006. 6. 24) '80만 외국인 근로자 송금 잡아라' 보도 자료.
- 설동훈(2002).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52, 200-223.
- 송대수(2002, 8.20) '13억 속 작은 한국' <한국일보> 보도 자료.
- 이영심, 최정신(2007). 중국 길림성(吉林省)에 거주하는 조선족(朝鮮族)의 주거 및 주생활 - 재한(在韓) 조선족 이주 노동자의 주거 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 대한가정학회지, 45(7), 1-15.
- 이태정(2004).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봉(1998). 재미 교포 주거 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1), 103-114.
- 하갑래(2005). '외국인 고용과 근로 관계' <중앙경제> p376.
- 한국노동연구원(2002).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
- 황유복(2001). 朝鮮族의 名稱考察. 月刊中國民族.
- ILO(2004). 'Toward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2nd Session. Report IV. Geneva : ILO.

(2007년 4월 30일 접수, 2007년 9월 12일 채택)